

재미 뒤에 숨겨진 모욕감

-MBC 일일드라마 <인어 아가씨>-

김소리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예술작품에 있어서, 통속적인 소재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있다. 하지만 TV 드라마는 종종 이렇게 항변하곤 한다.

“연속극이 재미있으면 댕지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그럴 듯한 걸 찾으려면 연속극을 보지 말고 소설이나 철학책을 읽으라구!”

요즘처럼 관객이나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존이 즉각적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든, 세계관이 있든 없든 간에 시청률이 좋은 것은 ‘짱’ 이요, 시청률이 나쁜 것은 ‘황’ 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는 첨단 시대였어도 자신을 버린 옛애인에게 복수하는 여자가 여전히 독기를 뿜어내고, 재벌 아들과 두 여인의 삼각로맨스가 매년 매분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걸 통해 TV 드라마가 노리는 것은 ‘재미있음’ . 그래서 얻게 되는 높은 시청률이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어아가씨>도 마찬가지다. 젊은 여자에게 미쳐서 가족을 버린 아버지와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재벌 아들. <인어아가씨>는 어느 식구처럼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 한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다’ 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미있음’ 이 재미있음 자체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연속극은 원래 그러니까, 하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드라마는 은근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그저 ‘한심해’ 라거나 ‘아유, 유치해’ 라고 일갈해버리고 말기에는 좀더 떨어뜨린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그 모욕감이 느껴지는 원인에 대해 파헤친 것이다.

깊이의 부재, 적나라한 속물주의

TV드라마의 통속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의 걸출한 이야기꾼 김수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의 드라마는 흔히 통속적인 드라마의 전형으로 꼽히곤 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드라마는 그저 그런, 평범한 통속물로만 치부되지는 않는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비범한 통속성’이라고 할까. 통속적이면서도 그 안에 어떤 ‘격’을 갖추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김수현의 드라마는 통속적인 멜로물이 대부분이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김수현표 드라마는, 사실은 남편의 외도와 남녀의 삼각관계, 상류층으로 진입하려는 하류 계층 인물의 강렬한 욕망, 자신을 버린 옛애인에 대한 복수 등 진부하기 짝이 없는 통속적인 내용을 소재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드라마들이 ‘비범한 통속성’이라는 ‘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시체도 일어나 앉게 만든다는 칼날같은 언어구사능력과 함께 박완서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세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비록 ‘강하면서 자애롭고 합리적인 아버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분명 만만치 않은 내공을 드러내는 깊이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김수현의 드라마를 보면 그 통속성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그가 툭툭 드러내는 인생에 대한 깊은 시선에 ‘역시 저래서 김수현이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인어아가씨>는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인어아가씨>는, 김수현의 드라마만큼 깊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있다면 적나라한 속물의식과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버린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메시지뿐이 아닐까.

우선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아주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다.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버린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악이며, 그와 함께 가정파탄의 주역인 아버지의 여자 또한 무조건적인 악이다. 갑자기 등장한 전처의 딸로 인해 행복의 절정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은,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을 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아도 ‘싼’ 존재들이다.

반면에 버림을 받은 주인공 모녀는 무조건적인 선이며,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인물들도 더불어 무조건적인 선이다. 능력있는 방송작가로 성장한 우리의 주인공이 이복여동생의 애인을 가로채는 것으로 복수를 하는 ‘방법’을 놓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복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씻을 수 없는 업보’를 남긴 아버지를 응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렇게 구분한 인물들을 놓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인 속물성을 드러내며 드라마를 극단적인 상태로 이끌고 간다. 그런 복수극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그걸 통해 무얼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오로지 복수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극단적인 설정과 노골적인 속물성으로 시청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많은 드라마들이 재벌을 등장시키고 화려한 상류층을 등장시키지만 <인어아가씨>만큼 노골적으로 속물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요즘 방송작가만큼 좋은 직업이 어딴어?” 라든가, “회계사면 먹고 살 만하지” 하는 따위의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다른 드라마에도 그런 대사는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들은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고 또 보고>라는 공전의 히트작으로 주가가 올라간 작가가 현실에서 좋은 대우를 받아서인지는 몰라도, 등장인물들은 그런 대사들을 통해 은근히 시청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라는 투의 과시를 한다.

그것은, 전문직에서 성공하여 물질적 부를 획득한 인물들이 소박한 척하면서도 그 성공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은연중에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모습을 통해 교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더욱 노골적으로 느껴진다. 겉으로는 속물스럽지 않은 척, 툭 하면 도리를 내세우는 척하는 것이 더 노골적인 속물스러움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이런 모습은 전작인 <보고 또 보고>나 <온달왕자들>에서도 익히 보여졌던 것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상류층이 많이 등장하는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상류층이지 않은 척, 소박하고 화목한 ‘중산층’인 척한다. 그러면서 25평 정도의 아파트쯤은 사람 살 데가 아닌 곳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온달왕자들>)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남자들은 모두가 여유가 넘쳐 흘러서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선물공세를 펼친다. 보약에서부터 사소한 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소심하지도 않고 편견에 갇혀 있지도 않다. <보고 또 보고>에서 검사였던 정보석

과 <인어아가씨>에서 신문사 사주의 아들인 주왕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쉬지않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부단히 선물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것들은 트렌디 드라마의 재벌 아들들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체하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순수함의 발로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들의 젠틀함과 순수함은, 따지고 보면 다 상류층에 속하는 경제적 여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더욱 교묘하다.

그런 노골적인 속물주의의 정점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은아리영의 직업적 묘사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 아파트를 샀을 뿐만 아니라 타방송국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현재 일하는 방송국에서는 백지수표 계약을 하자는 제의까지 받는다. 그런 내용을 직업군에 대한 사실적 묘사라는 명분으로 시시콜콜히 그려진다. 게다가 주인공은 철두철미한 성격이기 때문에 드라마 대본은 미리 써두고 방송시에는 조금씩 수정만 할 뿐이다.

뿐만이 아니다. 성공한 작가이기 때문에 연출자나 배우들도 쥐락펴락한다. 작가가 실제로 그런 ‘위세’를 누려서인지는 몰라도, 이 드라마를 보면 연출자는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가는 캐스팅에서부터 촬영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소리를 드높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부하직원에게 따지듯이 연출자에게 따진다. 그리고 나서는 한 마디 하는 것이다. 출연자, 스태프들과 회식하라고 회식비 좀 보냈다고.

방송작가로 성공하면 얼마나 근사하고 폼나는지, 이 드라마는 속속들이 보여준다. 왜 이런 여자가 그런 복수극에 목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그러므로 이 드라마는 두 가지 메시지는 확실히 전할 듯 하다. 바람 핀 아버지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방송작가로 성공하면 백지수표를 받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그래서 방송작가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는 것. (실제로 이것은 드라마에서 대화에 수시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방송작가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부한 언어, 세계관의 부재

가정을 버린 아버지를 응징하는 일은 ‘업보, 순리, 죄’ 따위의 언어로 정당화된다. <보고 또 보고>와 <온달왕자들>에도 이 단어들은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을 드러

내는 언어로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작가의 세 번째 일일드라마 <인어아가씨>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은아리영)이 이복 여동생(은예영)의 애인을 가로챈으로써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시작하자, 엄마의 후배 수아는 “지 부모의 업보 때문에 예영이가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혀를 찬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업으로 결정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예영이가 본처와의 가정을 파탄낸 부모의 업 때문에 실연에다 그 충격으로 실성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자식은 부모의 업으로 결정된다니, 이 얼마나 섬뜩한 말인가. 작가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장애인이나 비명횡사한 자식들은 다 부모의 업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인가. 뿐만이 아니라 아리영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친구 심수정에게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업보, 죄’는 이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등장하면서 운명론과 주인공의 복수극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순리’라는 말을 통해 한번 더 정당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여자에게 미쳐서 가정을 버리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응징받아 마땅한 것이 되고, 가정 있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 가정을 망가뜨린 것도 순리에 어긋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수정은 전처의 딸(은아리영)에게 뺨을 세대씩이나 맞아도 할 말이 없다.

대체 뭐가 순리인지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저 ‘순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복여동생의 애인을 빼앗는 주인공의 복수극을 정당화시켜주기에 바쁜 것이다.

이런 진부한 언어들은 작가의 세계관의 부채를 그대로 드러내준다. 세계관이 없으므로 그런 언어들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런 언어들에 기대면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다. 김수현 식의, 바람 핀 아버지를 복수해야 하는 여주인공의 심리를 칼날같은 언어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업보, 죄, 순리’ 따위의 언어에 기대 정당화시키면 얼마나 편리할 것인가.

하지만 이런 언어에 기대는 작가의 태도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작가는 그런 언어에 기대 해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 원인을 따져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뭐든지 순리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정치고 뭐고 다 이 모양이야” 하는 식으로 넘어산다. 생각해보면 ‘순리’라는 게 얼마나 이현령비현령 식 개념인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사주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는 작가가 생각하는

‘순리’의 개념에 맞게, 사장실에서 편집회의를 주관하고, 방송작가 인터뷰를 하라 마라에 관여할 정도로 신문의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 물론 그는 횡령, 탈세, 외도 같은 ‘업보’나 ‘죄’는 절대 짓지 않는다. 사려깊고 합리적인 그는, 다만 회사일에만 몰두하면서, 편집국장이 있는데도 회의를 주관하면서 신문의 전방향을 결정할 뿐이다. (그는 특정신문을 연상시키는 신문의 색깔도 정한다. 살구색으로 말이다) 그리고 당연하게, 현재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는 아들에게 신문사를 물려줄 생각이다. 얼마나 ‘순리’에 맞는 것인가.

작가는, 그런 사주가 있으면 언론개혁이니 뭐니 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부한 언어에 기대길 좋아하는, 그래서 툭 하면 ‘순리’를 들먹이길 좋아하는 작가는 드라마 속에서 간접광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관의 부재를 또한번 드러낸다. 대체 간접광고를 열심히, 적나라하게 하는 것이 ‘순리’를 지키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인어아가씨>에서의 간접광고는 노골적이다. ‘롯데 자일리톨 껌’, ‘베스킨라빈스31 아이스크림’, 촬영장소를 협찬하는 ‘문화일보’ 처럼 제품의 로고가 선명히 보이는 제품을 빈번히 등장시키는 것은 물론, 인삼 초콜렛과 수분 스프레이, 야광 여성용 트렁크 팬티 등 평범하지 않은 물건들을 끊임없이 등장시키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 더구나 ‘야광 여성 트렁크 팬티’ 처럼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제품의 로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명백한 간접광고가 아닐 수 없다.

뿐인가. 주인공 은아리영 역으로 나오는 장서희가 광고하는 화장품 냉장고가 극중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왕의 할머니가 입원하는 병원에는 난데없이 김치 냉장고까지 등장한다. 대체 병원에서 김치냉장고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경울까. 또한 비좁은 집에서 두 식구만 단출히 사는 아리영네가 김치 냉장고를 들여야 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김치냉장고 에피소드는, 작가가 ‘시청자들도 김치 냉장고 한번 이용해 보라’는, 김치 냉장고 광고용으로 삽입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오버센스일까.

그리고 간접광고를 하는 형태도 어찌나 ‘순리’에 맞는지, 극중 ‘태양일보’로 등장하는 신문을 놓고는 “살구색이라서 확 눈에 띄어”, “요샌 신문도 패션시대야”라는 대사로 살짝, 그러나 누가봐도 ‘문화일보’임을 알 수 있게 광고해준다.

유치함과 개연성의 부족

<인어아가씨>의 또 한가지 특징은 유치함이다. 이미 전작인 <온달왕자들>에서 성인 아들 세 명이 물총 장난을 하는 모습을 ‘재미 있으라고’ 3분 가까이 보여준 적이 있는 작가는 이번에도 ‘재미 있으라고’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궁리한 듯하다. 주로 코믹한 에피소드들은 드라마 속에서 희화되는 인물들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근엄한 신문사 사주 부부인 주왕의 부모와 마마준 - 마마린 남매를 통해 구현된다.

주왕의 부모는 단한번의 장난을 위해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30만원이 넘는 ‘뽀글머리’ 가발을 사서 잠자는 아버지에게 씌운다. 그리고는 혼자 길길대며 좋아한다. 아버지는 또 어쩔까.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택배로 ‘꺼병머리’ 가발을 주문한다. 그걸 어머니에게 씌워 똑같이 길길대며 좋아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재밌는가. 30만원이 넘는 가발을 사서 잠자는 남편에게 씌우고는 재밌다고 길길대는 아내라니. 또 그만한 가격의 꺼병머리 가발을 아내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는 남편이라니. 우리의 신문사 사주들은, 알고 보면 것처럼 어린애다운,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에피소드를 삽입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는 장면이다.

그런가 하면 마마준-마마린 남매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한 시도 쉬지않고 다툰다. 수분 스프레이를 서로 사용하겠다고 싸우질 않나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오빠를 깨워 한밤중의 거실에 텐트를 쳐달라고 때를 쓰며 또 싸우기도 한다. 그들은 ‘재미 있으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로지 티격태격하도록만 설정된 이상한 남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유치함’ 도 내용 전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주인공 아리영의 복수극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척척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영이 복수극에 매달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리영의 엄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자폐아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후에 죽자 실명까지 한 딱한 처지다. 그랬기 때문에 아리영은 온갖 고생을 하며 소녀 가장으로 가계를 이끌어 가야 했고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방송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복수는 모두의 동정과 협조를 사게 된다.

먼저 아리영의 대학 친구로서 신문사 기자인 성미가 나선다. 그녀는 자신 또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절친한 친구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의 아리영은 이복 여동생의 약혼자이자 신문사 사주의 아들인 주왕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왕 또한 전혀 신문 기자답지 않은 어리숙함으로 아리영의 계획 실현을 도와준다. 아리영이 친구 성미의 배려로 ‘드라마를 위해 신문사 내부를 취재하고 싶다’ 며 주왕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그 통화에서 아리영은 이름은 밝히지만 “성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로 은씨라는 성을 은폐한다. 아버지가 그 신문사의 문화국장인 까닭이다. 그렇지만 주왕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와 “내 이름은 영희예요. 성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데도 고개 한번 가우뚱거리지 않고 알았다고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빼앗은 심수정의 친구이자 엄마의 후배인 수아도 “그래, 지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해” 하는 말로 아리영의 계획을 수궁해준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전도유명한 방송작가가 상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즉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친구나 이모뻘인 아줌마 모두 말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아리영의 엄마도 예외는 아니다. 장님이 된 엄마는 복수극을 벌이는 딸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다. 딸의 뻘한 파국을 예상하면서도 만류하지 않는 어머니라.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 를 뛰어넘어 바보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다.

그렇게, 모두가 바보들처럼 아리영의 계획에 동참을 하는 드라마는 주왕이 아리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데도 세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아리영은 정말 완벽한 여자라는 것이다. 글솜씨가 뛰어나 방송작가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모면 미모, 요리면 요리, 춤이면 춤, 드럼연주면 드럼연주, 초상화면 초상화, 못하는 것이 ‘슈퍼울트라캡송 우먼’ 이다. 게다가 자의식이 강한 ‘작가 선생님’ 답지 않게 결혼하면 어른들 깍듯이 모시면서 남편 뒷바라지 잘 해야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놀랍도록 충실하다. 이런 아리영이니, 재벌 아들답지 않게 순수한 주왕이 어찌 끌리지 않을 수 있으랴.

개연성의 부족으로 인한 황당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드디어 아리영의 아버지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작은딸 예영이의 애인을 계획적

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딸 아리영을 찾아가 작은딸 예영이를 위해 당장에 주왕과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으며 구타까지 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차에 태운 후 함께 죽자며 강물에 뛰어들려고까지 한다. 왜, 아버지는 작은딸 예영이만 귀중한 것일까. 원래 ‘순리’ 를 어긴 인물이라서?

그런 아버지에게 아리영이 대하는 태도도 다를 바 없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야 이해가 된다 쳐도, 용서를 구하러온 아버지 앞에서 살림을 다 부수며 악담을 퍼붓는가 하면, 급기야 아버지가 주왕이와 헤어지라며 뺨을 때리자 병을 깨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은 납득하기 힘들다. 시청자들은 ‘장서희(아리영 역) 연기 정말 잘 하네’ 라는 감탄과 함께 드라마가 뺨어내는 독기 속으로 빨려 들지만, 드라마는 점점 극단적인 갈등으로 뻗어가는 전략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다.

아들이 싫다고 하는 예영이를 굳이 집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는 주왕 부모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영이는 실연을 당하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실성한다. 오로지, 사랑하는 ‘주왕오빠’ 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어렵다는 시험에 톱하니 붙고, 그런 다음 기차 생활 하다가 결혼 때문에 아낌없이 사직한, 그 대단한 예영이가 ‘사랑밖엔 난 몰라’ 는 인물이 되어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사랑밖엔 난 몰라’ 가 되는 것은 아리영도 마찬가지. 복수극을 위한 도구로 접근했던 주왕에게 점차 사랑을 느끼는 아리영은 그와 결혼해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겠다고 생각한다. 드라마 작가로서의 성공도 멋진 남자와의 결혼만큼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복동생 예영은 정신병원에 갇혔고 아리영은 눈물을 쏟으며 주왕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주왕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리영이 심장병인가 무슨병인가로 죽는다던가. 그래서 ‘인어아가씨’ 라던가. 그녀의 그 대단했던 복수극이 그렇게, 일일드라마답지 않게 슬프게, 주인공들을 불치병에 걸리게 했던 술한 드라마들처럼 그렇게 끝난다던가.

누구를 위한 드라마인가?

그러나 정작,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지는 불쾌함의 가장 큰 원인은 작가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황당한 내용전개나 유치한 에피소드의 나열, 그리고 노골적인 속물주의의 표방 등은 TV 드라마를 통해 하루이틀 경험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작인 <보고 또 보고>나 <온달왕자들>도 그랬지만, <인어아가씨>의 사건진행을 분명 흡인력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덜대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들에 대해 작가가, 극중에서 드라마 작가로 나오는 아리영의 입을 빌어 맹렬히 성토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불쾌함을 뛰어넘어 공중파라는 공적인 재산을 사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혹마저 살 수 있다. 한다. 아리영은 표독스럽고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일갈하지 않았던가. 드라마가 유치하다, 짜증난다 하는 비난도 “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이고,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하는 말들” 이라고. 그것에서 “니들은 입 닥치고 드라마나 봐” 라고 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느껴졌다면 지나친 것일까.

아리영이 드라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지나치게 독기를 뿜는 모습이어서 마치 시청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듯 했다. 그 절정은 타방송사가 시청률이 좋은 자신의 드라마에 맞서 방영시간을 늘이는 것에 대해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미있는 드라마로 승부를 걸어야지 치사하게 연장편성으로 수를 쓰고 있어. 그쪽에서 5분 연장하면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대본 5분 분량씩 더 보낼 테니까 편성국에 말해서 우리도 연장방영 해요!” 라는, 연출자에 대한 명령으로 응수하는 장면이다. 가히 장서희의 독기 어린 연기는 일품이고 연출자를 쥐락펴락하면서 라이벌 드라마 작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작가의 태도는 위압적이다. 하지만 정작 작가가 노리는 것은 이 드라마에 대해 투덜거리는 시청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또한 지나친 판단일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드라마와 에피소드들이 겹칠까봐 두렵다, 그러면 표절 의혹을 받으니까.” 라는 말로 작가는 자신의 드라마 <인어아가씨>가 대만 드라마 <안개비연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변명한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모욕감이다. 세계관은 없고 극단성과 속물주의만 있는 드라마의 내용과 시청자들에 대한 오만한 태도는,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우리를, 나 자신을 ‘바보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보아야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작가는 또다시, 다른 작품에서 이런 나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것이다. <인어아가씨> 또한 성공했기 때문에 아리영 못지 않은 위세를 누릴 것이 뻔한 작가는 어렵지 않게 다음 작품을 집필하면서 힘없는 시청자 하나의 의견쯤 가볍게 묵사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이데올로기. 진정으로 불쾌한 점은 바로 그것이다.